

합성수지, 컨테이너 운임인상 타격

유가할증료 인상 따라 벌크선도 상승 ... 한-중 항로도 TEU당 50달러

해운 운임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다.

컨테이너 운임이 고유가에 따른 유가할증료(BAF) 인상에 따라 뛰고 있고, 2005년 들어 줄곧 곤두박질쳤던 벌크선 운임도 급속히 회복되고 있다.

유조선 운임도 겨울철 성수기를 앞두고 다시 반등할 조짐이다.

세계 15개 해운기업협의체인 극동유럽항로운임동맹(FEFC)은 9월1일부터 아시아-유럽 항로의 유가할증료를 TEU(20피트 컨테이너 1개)당 199달러에서 219달러로 20달러 인상한다.

1월 128달러에 불과했던 유가할증료는 사상 초유의 고유가 행진이 지속되자 5월 171달러, 6월 205달러 등으로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아시아-미주 항로 유가할증료도 4/4분기에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 3/4분기에 FEU(40피트 컨테이너 1개)당 270달러였던 유가할증료는 2005년 1/4분기 310달러로 인상된 뒤 3/4분기에는 410달러까지 인상됐다.

해운 관계자는 “고유가 행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10월 조정되는 4/4분기 미주항로 유가할증료는 3/4분기보다 다소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중 운임도 9월1일부터 TEU당 50달러, FEU당 100달러씩 각각 인상돼 수출화물 운임은 TEU당 250달러, 반대로 수입화물 운임은 300달러로 조정된다.

아시아항로 운임협의체인 IADA는 2005년 초 회의를 열고 2차례의 운임 인상에 합의해 4월에 이어 9월에도 컨테이너 운임이 TEU당 100달러, FEU당 200달러 인상됐다.

이에 따라 석유화학제품 수출 코스트가 대폭 오를 것으로 보여 채산성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국내기업들에게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화학저널 2005/09/05>